안녕하십니까. 시 의회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앨버트 코헨(Albert Cohen)"입니다.

전 15 살에 뉴욕에 왔습니다. 이곳 "퀸즈(Queens)"에 정착할 당시 뉴욕은 세계 최고의 도시이며 구소련 연방에서 온 어린 소년조차도 큰 꿈을 가질 수 있는 곳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대에 진학하여 저희 자치구에서 수습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고객들을 보면서, 전 뉴욕이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곳, 도움과 지도력을 필요로 하며 힘과 용기와 확신을 한 사람들이 어려운 시간을 겪고 성공하는 곳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겐 항상 큰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꿈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겐 이를 현실화 할 단단한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치솟는 집값과 무자비한 집주인들 때문에 많은 뉴욕 시민이 집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뒤처지는 학교 내에서 뒤처져 있습니다. 거리는 안전하지 않으며 많은 가족이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우리가 겪는 시련을 이해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의회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저렴한 주택을 위해, 이웃을 빌미로 돈을 벌고자 하는 개발업자들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도로에 경찰을 배치하여 주민 센터를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침체로 타격을 입은 열심히 일하는 뉴욕 시민을 위해

고용을 창출하겠습니다.

이민자로서, 비주류로 남아 있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고 있습니다. 시 의회에서 그동안 시청에서

신경 쓰지 못했던 뉴욕 시민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선거일에 바로 저, 앨버트 코헨을 찍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 * * * *